



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784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매곡리공소(모산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2년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2024년 4월 21일(나해)

제1독서 사도 4,8-12

화답송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1요한 3,1-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신학교 지원반 모임

4월 2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홍성·서산·당진·보령
예비 신학생 모임

4월 2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홍성성당

예비 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김윤석 루카
성소국장

오늘 성소 주일은 신자 개개인의 성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제 성소, 수도 성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제와 수도자로 불러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한 날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시키시면 어떨까? 그럼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지 않을까? 사람들의 뜻을 존중하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시어 원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느님의 뜻대로 사람들은 낙원에서 편히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은 종종 신자들의 입을 통해, 때로는 예비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느님께서 강제로 시키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노예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강제로 시키고 그 강제된 삶을 억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은 노예지 자유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 노예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양들처럼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주님을 알아뵈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아래 한 양 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부르심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사명을 이어가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서 성소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한 날이니, 사제 성소자들, 수도 성소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로써,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어 자신의 성소를 알아채지 못한 성소자들에게 응답을 권유하는 모습으로써, 성소자들이 가는 길에 묵묵한 봉사으로써, 사제 성소자들, 수도 성소자들이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내놓는 응답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그리고 자유로이 응답하며, 성소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응답해 가는 길에 협력하는 부르심에도 잘 응답하였으면 합니다.



바울이
(1066)
유판식 토마스



첫 번째 에피소드 합덕성당

이번 회부터 4회에 걸쳐 4개 본당에서 협조해 주신 7분의 아름다운 신앙 체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걷는 신앙 여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전체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내용들을 찾았지만 동시에 통계와 수치만으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개인 체험과 본당 공동체의 내적인 힘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합덕성당의 이 데레사 자매님, 김 다니엘 형제님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Q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사 전례와 성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데레사 자매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뛰놀았던 장소가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 전례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요. 비록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삶의 기억들이 제게 커다란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잠시 쉬었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힘을 얻고 있는 기도 생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데레사 자매님 저는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그 기도 지향 안에는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청원하는 내용도 있고, 감사의 내용도 있어요. 특별히 남편의 병환을 겪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께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 의탁이라는 의미를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이지요. 신부님 강론 말씀으로 매주 힘을 얻고 있는데, 청원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것을 생활하면서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Q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당 내 여러 교육 프로그램(예비신자 교리, 성경 공부, 주일학교, 노인대학, 기타 교육 등) 혹은 피정을 해보셨을 텐데 그중 가장 와닿았거나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다니엘 형제님 저는 1981년 부모님이 천주교로 개종하신 이후 함께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는데요, 꾸르실료 교육을 가보라는 소개를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삶은 온전히 변하게 되었는데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늘 주님을 찾게 되었고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교육 프로그램도 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매주, 또 평일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Q 신앙생활 중에서 사제, 수도자, 혹은 교우들로부터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김 다니엘 형제님 제가 위령분과장으로 봉사할 때 주임신부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하나가 함께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저희가 하는 위령봉사의 의미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이 위령분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장례 절차 안에서 유가족 중 쉬는 교우분들이 이 계기를 통해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장례미사를 통해 우리 신앙의 의미와 목적지, 삶의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 미사 해설 - 마침 예식(1) : 마침 예식의 의미

시작 예식을 통해 거룩한 만찬이 시작되었고,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영육 간에 힘을 얻는 하느님 백성은 미사의 마지막 부분인 마침 예식에 참여 후 다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침 예식에서 중요한 것은 사제의 강복입니다. 우리는 강복을 받음으로써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었으며, 제자들을 굳센 신앙으로 변하게 하시어 신앙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물은 제자들에게 평화와 함께 성령을 주시는 데(요한 20,21-22), 마침 예식의 강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강복의 의미는 영원한 삶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활력을 주고, 세상을 위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과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예식은 단순히 전례의 마침표를 찍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파견의 의미로써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재시작한다는 점은 마침 예식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신앙적인 삶을 새롭게 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침 예식은 미사에서 얻은 하느님과의 일치와 사랑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도 그 은총이 확대되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복과 파견으로 이루어진 마침 예식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거룩한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주님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침 예식을 거행하도록 인도합니다.

90. 마침 예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ㄱ) 필요하다면 공지 사항을 짚막하게 알린다.
- (ㄴ) 사제는 인사와 강복을 한다. 강복은 어떤 날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백성을 위한 기도나 장엄강복을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다.
- (ㄷ) 부제 또는 사제는 신자들 각자가 돌아가 선행을 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도록 그들을 파견한다.
- (ㄹ) 사제와 부제는 제대에 입을 맞춘다. 그 다음에 사제와 부제는 물러나서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에 깊은 절을 한다.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대전성모병원, 간클리닉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간클리닉이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간암은 간이식수술, 간절제술 등 수술 외에 고주파열치료, 간동맥색전술, 면역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 볼 수 있는 암으로, 다학제 협진을 통한 환자 맞춤형 접근이 긍정적인 치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소화기내과(송명준, 김석환 교수), 외과(박재우, 이상권 교수), 영상의학과(김지창 교수), 방사선종양학과(허길자 교수) 의료진으로 구성된 협진팀을 운영해 온 대전성모병원 간암 다학제팀은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초기부터 환자와 보호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 측면에서는 간암 환자의 진행 병기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술적, 비수술적 진료 시스템을 모두 갖추는 등 최신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된 간암과 간전이의 최신 치료법인 방사선선택술은 지난 2016년 중부권 최초로 시행된 이후 꾸준히 시술 건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성모영보

수태고지, 1476년, 수태고지, 팔레르모 미술관.

안토넬로 다 메시나(Antonello da Messina, 1430~1479)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르네상스 예술의 대가였다. 그가 1476년에 그린 ‘성모영보’ 작품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팔레르모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성모영보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의 일화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그의 작품은 성모영보 안에서 마리아가 겪은 모든 감정 단계(혼란, 심사숙고, 물음, 순명, 공로)를 요약하여 보여주기에, 이 작품을 보는 관람객은 성모영보에 대해 묵상할 기회를 얻는다.

안토넬로의 성모영보는 다른 성모영보 작품처럼 마리아의 동정을 의미하는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나 수선화,

성령의 빛도 표현되지 않으며, 천사 또한 작품에 없다. 작품 속의 마리아는 작품을 감상하는 이의 정면을 바라본다. 우리 또한 이 작품 속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모습에서 상반된 것을 발견한다. 마리아의 오른손은 천사의 예고에 놀라움을 표현하지만, 반대로 푸른색 베일을 잡은 왼손은 그 예고를 받아들임을 드러낸다. 또한 마리아의 오른쪽 눈은 순명을 나타내지만, 왼쪽 눈은 본인은 처녀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천사에게 묻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리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베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분법적이면서도 동시에 합성적인 이 마리아는 성모영보의 서양식 이콘이라고 볼린다.

안토넬로가 표현한 뒤집힌 반대 관점은 신비의 수용자인 우리를 마리아 앞에서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천사 자리에 두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랫부분을 잠시 본다. 마리아 앞 책상 위에 놓인 독서대의 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의 바람에 의해 책의 장들이 들어 올려진다. 곧, 마리아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 탄생 예고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 동시에 독서대의 구석은 이제 우리가 마리아와 이야기할 차례라고 가리킨다.

우리는 4월 8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맞이하여, 안토넬로의 성모영보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신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겸 솔뫼 교구역사관 관장

성지를 걷다_여사울성지(3)

1 글·그림 여사울성지

3. 이존창 루도비코를 보며 지금의 시대에 전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

1. 만민평등사상을 실천하며 신앙을 전파하였다. 한학자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천주교가 양인 평민, 천민,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삶을 통하여 증언하였다. 갑질과 왕따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지금의 사회에서 차별이 당연시되던 신분사회인 조선사회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모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이 아니겠는가? 여사울이라는 명칭이 예수골, 여수골에서 왔다는 전승을 보면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신앙촌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증언해 준다.

2. 가성직자제도에서 사제의 역할을 수행한 이존창에 의해서 많은 이가 신앙을 접하였으며, 그렇게 전파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사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김대건, 최양업, 최방지거 등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제 양성을 위해서는 신앙을 가지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알립니다

교구알림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4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곳 : 4.23(화) 19:00, 신탄진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전담사목

청년 성시간

- 때 : 4.24(수) 19:3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대전직장직종사목부 과학의 날 연합미사

- 때 : 4.25(목) 19:00 / 18:00부터 고해성사
- 곳 : 에너지 기술연구원 대강당
- 미사집전 : 총대리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

황무실 성지 미사

- 매일 첫 토요일 (3월~11월) 11:00
- 우천시 본당에서 미사
- 주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013
- 문의 : 신탄진성당 (041)362-5947

가정신앙강좌 : 우리들의 블루스3

- 때·곳 : 5.10(금) 19:00~21:00, 교구청 명례방
- 주제 : 오늘 (오직)을 산다
- 참가비 : 무료 (개인탐블러 준비)
- 문의 : (042)256-5487~8 가정사목부

혼인교리

- 비대면교육
- 문의 : (042)256-5487~8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가정사목부

본당

만년동본당 사무장 채용 공고

- 대상 : 영세3년 이상, 회계업무, 사무행정, 전산업무가능자, 1종보통운전면허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 서류접수 : 4.28(주일)까지 / 서류반환불가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및 면접
- 문의 : 사무실 (042)489-9031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대상 : 성인, 청소년, 아동(종교 무관)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i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2024년 하계 푸르실료 참가자 모집

- 여성 제180차 7.17(수)~20(토) 제181차 7.24(수)~27(토)
- 남성 제180차 8.1(목)~4(주일)
- 청년 제15차 8.8(목)~11(주일)
- 모집 : 남성, 여성 각각 60명(선착순)
- 참가비 : 23만원(3박 4일)
- 자격 : 영세 후 만3년 이상 신자로 본당 주임 신부와 올트레야 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문의 : 올트레야 간사
- 곳 : 정하상 교육회관

대전교구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상 : 초등 3학년부터 중등 1학년까지
- 대전반 : 매주 수 19:00~21:00, 대전 가톨릭 문화회관 4층
- 세종반 : 매주 목 19:00~21:00, 세종 성요한 바오로2세 성당
- 문의 : 010-7921-3610

포콜라레 본당운동 열리피정

- 때·곳 : 5.6(월) 10:00~16:00, 정하상교육회관
- 대상 : 신자로서 본당운동에 관심있는분
- 참가비 : 35,000원 / 선착순 접수마감
- 문의 : 010-9244-4597, 010-5475-0253

대전가톨릭문학회 신입회원 모집

- 대상 : 문학을 사랑하는 대전교구 천주교인
- 사업 : 문집 회보 발간, 시화전 문학기행 피정
- 문의 : 010-4012-3273 김성련 다니엘 회장

파티마 세계사도직 (셀)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5.4(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4939-8688

대전교구 음악선교단 작은평화 단원모집

- 대상 : 기타, 건반, 베이스, 남자보컬
- 자격 : 음악과 주님을 사랑하는 2~30대 천주교 신자
- 소정의 오디션 후 선발
- 문의 : 010-8922-5469, 010-2865-9273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가대 생명대학원)

- 모집전공 :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 6.3(월) 14:00
- 원서접수 : 5.7(화)~20(월) 17:00
- 문의 : (02)3147-8156(대학원교학팀), (02)3147-8664(조교)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 학교입학 : 초5~고2 미국아일랜드, 6개월 이상
- 여름캠프 : 초3~중2 (남)더블린, (여)보스턴
- 문의 :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 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상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래피, 이콘
- 전례초조각, 성가, 영성심리상담
- 성모님마음, 예수님마음, 427(토) 10:00~16:00 미사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 성인&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 내 용 : 6월29일 출발
- 지역 : 필리핀 바콜로드
- 내용 : 주중영어연수, 주말봉사활동 (봉사인증가능)
- 문의 : 대구청소년수련원 (053)593-1273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신입생모집

- 석사 :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 박사 : 신학(교의·조직/영성), 영성철학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 석·박사통합 :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 접수 : 4.22(월)~5.2(목) / 전형일 : 5.18(토)
- 문의 : (02)705-8668, gsotsogang.ac.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17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7/12 동부유럽 5개국 465만원
7/12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460만원
신청 및 문의 T. (02)2281-9070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MRI 2대)
원장 : 김경훈(요한), 김재환(필립보) 외 9인 협진
T. (042)489-8888 유성운천역 1번 출구 5분 거리

맑은눈 안과

노안, 백내장, 녹내장, 라식, 라섹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 · 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통I.C 인건
T. (041)732-0620 대포 강희권 울리오

현대 정형외과

- 척추, 관절, 통증, 재활 -
원장 : 이정구 (시몬)
T. (042)621-7585 동구 가양초 사거리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3박4일
- 문의 : 010-3645-9028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 문의 : (02)2274-1843, 4 www.cdcc.co.kr



수도회 및 피정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 때 : 5.23~25(성모의밤), 6.19~21
- 곳 : 성 이시돌 피정의집 (통합사목센터)
- 대상 : 개인, 단체 (구반장 맞춤피정 환영)
- 문의 : 010-9670-9775, 010-2231-207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 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피정
- 자연순례 : 5.14~16, 5.27~29, 6.10~12, 6.22~24, 7.19~21, 8.21~23
- 우도해변포함 : 7.25~28, 8.1~4, 8.8~10
- 성지순례 : 5.8~11, 5.19~22, 6.15~18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자연순례 : 5.6~8, 5.17~19, 5.22~24, 6.21~23
- 추자도포함 : 5.26~29, 9.11~14, 10.5~8, 10.27~30
- 제주성지순례(추자도포함) : 6.16~18, 7.1~3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2024년 성령쇄신 전국 치유대피정 실시

- 때 : 4.27(토) 09:00~17:30
- 곳 :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 강사 : 양창우 신부, 한연홍 신부, 오웅진 신부
- 미사 : 구요비 읍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 주관 :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문의 : (02)777-3211

온라인(Zoom) 33일 묵상회

- 때 : 4.29(월) 20:00~5.31(금) 봉헌
- 회비 : 3만원(교재포함)
- 접수 : 서울마리아학교 010-2724-4819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성경완독 : 5.17(금)~25(토), 6.21(금)~29(토)
-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 5.10(금)~12(주일)
- 효소단식 : 5.30(목)~6.2(주일)
- 문의 :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때 : 4.27(토) 14:00, 그 외는 전화
- 곳 : 대전 대철회관
- 대상 :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 문의 : 010-9353-1773 (미리연락)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 때 : 전화상담 후 결정
- 곳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 문의 : (061)382-2214, 010-7159-9674

예수마음기도 하루 무료 피정(권민자수녀)

- 때 : 5.11(토) / 6.8(토) (10:00~15:00 / 14:00 미사)
- 매월 둘째주 토요일 무료피정 예정
- 신청 : 010-4837-7509
- 곳 : 부산가톨릭센터 (051)462-1870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용	차량운행 / 비고
은혜의 밤	4.25(목) 19:00	강사 : 김대주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말씀, 미사 안수 등	지족역 2번 출구 18:50, 19:10 대기출발
성모신심미사	매주 토 10:30	미사, 묵주기도	버스노선 114, 119번(반석고 하차)
천안아산지구 성시간	매주 금 13:30	진행 : 김기범 신부(성령쇄신봉사회 전담) 미사, 성시간, 안수 등	곳 : 천안 청당동 성당 문의 : 010-9697-6772

하느님 백성과 교구장 주교님이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2024.05.01.(수)

대전교구 2040 탄소중립에 동참하여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간 09:30~16:00

집결 신리성지
*승용차로 오는 분은 솔피성지에 주차 후 이동(셔틀버스 운행 09:00~09:30)

순례 신리성지- 합덕성당-솔피성지(파견미사)

준비물 미사준비, 봉헌금, 도시락, 물, 개인컵, 개인 돗자리 등

문의 (044)270-3075

주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여성연합회

* 우천 시에도 진행합니다.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 3,500,000원(성환)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23.4°C

총 모금 234,331,432원

[3.29~4.4 모금액] 21,449,751원
본당 19,376,506원 / 개인·기관·행사 2,073,245원

보나투어 성지순례

5/5 스·프·프 성모발현지 525만원
5/12 일본 고토 성지순례 169만원
5/13 산티아고 도보순례 42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를 검색해 보세요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미카엘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제주도 성지순례 3일 5월 6일~8일
한국성지167 원주·춘천교구 4일 6월 19일~22일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5월 13일~16일
미카엘 여행사 T. 010-8650-9690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산부인과 전문의 박상도(펠릭스)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대철중학교 개교기념 및 신입생 환영 미사



대철중학교(교장 김우선 수녀)는 4월 5일(금) 운산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학교법인천주교대전교구대지학원 이사장) 주례로 '개교기념 및 신입생 환영 미사'를 봉헌했다.

해미순교자국제성지 정기 도보순례



해미순교자국제성지(전담 한광석 신부)는 4월 6일(토) '해미순교자국제성지 정기 도보순례'를 했다

이날 순례는 산수저수지 주차장에서 총대리 주교로부터 강복을 받고 출발해 산수저수지~뚝방길(활터)~해미읍성까지 약 5Km를 순례 후 해미읍성에서 총대리 주교 주례의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했다.

'해미순교자국제성지 도보순례'는 1935년 4월 1일 해미에서 발굴된 순교자의 유해를 4월 2일 신자들이 대곡리에서 상홍리로 옮기는 만장행렬을 기념하며 순교자들의 죽음과 삶을 묵상하기 위해 매년 4월 첫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사순 시기 사랑의 나눔 2차 현금 전달식



사순 시기 사랑나눔 2차 현금 전달식이 4월 8일(월) 교구장 집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전달된 현금은 지난 사순 시기에 관저2동성당, 죽동성당, 온양모종동성당, 해외선교, 교구 내 사회복지 시설, 공동체 현금의 날, 예루살렘 성지복구와 보존이라는 지향으로 봉헌된 것이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지구사목회장과 평단협 상임위원 간담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임우택 살레시오, 담당 김경호 신부)는 4월 6일(토)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교구장 주교와 함께 교구청 비안네실

에서 지구사목회장단과 평단협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구사목회장과 상임위원 소개와 교구 및 지구현안에 대한 주교님과 대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본당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 세종성요한바오로2세본당



▲ 전민동본당



▲ 원신흥동본당 부활 계란 콘테스트



▲ 배방본당